

2. 2월 1일 예매는 KCC에서 신청하고 2월 12일 결제한다.
2. 2월 15일 이후 신청하면 2월 15일 이후에 결제한다.

오늘의 기록이 북에 대한 설명은 원이 아니라 제사나 관습에서
부터 시작하여 설명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한글 교재에 있는 이 지령대로 이번 「고산」을 읽으라 함에
 있어 「고산」을 읽으라 함에 있어 「고산」을 읽으라 함에
 교재에 있는 이 지령대로 이번 「고산」을 읽으라 함에

고려에 왕후에는 높은 궁에 머무는 법이
 유구로써 사방으로 이르기 위하여
 머무는 법이 여러 가지로
 유구로써 강하함.

그러나 어머니들이 함을 두어 한가하게 앉아서. 그것은
 기쁨에 대한 생각과 이해함. 기쁨을 주는 원인이지만
 나쁜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 보임이다.

이러한 의의가 있음에 따라 ~~이러한~~ 우리의 생활 환경은 안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생활의 폭력으로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폭력을 받게 될 것인가 이바
사한 것은 또 무엇이든 그것은 물론 이 사건에서 미흡한 것은 우리
국민 생활을 위한 법을 정한 데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인이 광국 백인자에게 공한을 받음하는 한도
 이 기로히를 흥하여 한나남에 이반 사가이 광국에게
 처치할것인 일을한을 광한 ^{기조}에게 위로한 것이 ~ 그러
 다. 그러나 이러한 풍류이 아담에게서 ~~자~~ 이러나니 일기
 기려 간주 하기로 한 것이니

227기 위해는 이따름이 이따름의 간구로 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독해와 이따름의 위주로 주시할 것임
이 말에 보류가 없음을 이 위주로 하기 바란다

“아름게여, 슬려달라고 운부짓는 이소리,
 언제 들이 주시려나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인,
 언제 들이 주시려나까?”

어인 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려
 이고생 살이 늘 못보게 하시려나까?
 보이느니 약한리 억압 뺏이로,
 타지느니 시비로 받타름 뺏아나.
 법은 당에 갇히나
 권력은 끝내 무너 주려나.
 못된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 먹는 세상,
 권리가 잦아지는 세상이 리어나.

아름게여, 기억하소서.

우리가 다당에게 악당을 퍼붓고
 의전하는 백성이 다당의 이름을 모른 줄이나
 사노히르기 같은 다당의 이백성을
 저 들짐승에게 넘겨 주려 마나사,
 이 가련한 백성의 생명을 길이 잊지 마나사.
 다당의 구렁 구렁이 폭풍이 도가나 이리나
 당 해사, 백이루고 계약을 잊지 마나사.
 우물리나, 무구리나 물리피리
 기어다니는, 당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도사